

## ‘1600억 투입’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 본격 추진

전남도·강진군 신속추진 협약  
상반기 기본구상 용역 등 착수  
“생활권 통합·물류 활성화 기대”

전남도는 7일 강진군과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공동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강진군 강진군수, 차영수 전남도의원,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은 총연장 2.5km로, 사업비 1,6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2025년 9월 전남도 정책비전투어에서 강진군이 건의한 뒤 공동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는 두 가지 추진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도 819호선을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최우선 반영되도록 협력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강진아트홀에서 강진군과 ‘강진만 횡단교량 건설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또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를 전남도 50%, 강진군 50%로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진만 횡단교량이 완공되면 강진만을 기준으로 나뉜 생활권이 통합되

고, 관광과 물류 이동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강진만 횡단교량은 강진의 새

로운 도약과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진군민의 교통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광주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공항미래도시본부 신설

### 5·18 50주년 기획단 출범 정책 실행력 강화 조직개편

광주시는 7일 “핵심 현안의 정책 실행력과 시민체감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출범한 임시조직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공식 기구화 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이 새롭게 설치된다.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은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보좌하는 3급(국장급) 기구로, 산하에 통합기획과·통합지원과 등 2개 과, 4개 팀으로 구성된다. 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법안 마련, 통합조직 설계 등 행정통합 전반을 종괄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통합공

항미래도시본부를 신설해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탄약고 부지 개발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종괄 추진한다. 본부에는 사업비 분

석과 재정계획 수립, 재원 확보를 전담하는 ‘사업부’를 신설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정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군공항 이전과 미래도시 조성을 연계한 종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5·18 민주화운동 50주년 기획단도 출범시켜 50주년 기념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획·조정한다. 기획단은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범시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10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 연계 등 5·18의 역사적 의미 확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는 ‘시스템통합팀’을 신설해 토목공사 이후 전기·통신·신호·선로 등 다양한 복합공정 간 기술적 연계를 강화한다. 완전자동 무인운전 시스템 구축과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개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행정력도 보강한다. 건강위생과에 ‘자살예방팀’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 정책을 추진하고, 돌봄·사회재난·도서관 분야 인력을 확충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119종합 상황실과 소방서 인력도 보강해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병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현안과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행정통합 추진 동력 확보와 미래도시 조성, 시민 안전 강화를 통해 ‘부강한 광주’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남도장터, 작년 매출 590억 달성 ‘역대급 성과’

전남도가 운영하는 공공형 종합유통플랫폼 남도장터가 지난해 매출 590억원을 달성하며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보다 101억 원(21%) 증가한 수치로 치열한 온라인 쇼핑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공공 플랫폼으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자사몰 매출은 전년 대비 39%나 성장한 184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판매 수수료 수익금도 6억원을 돌파해 자립도를 높이는 등 지자체 운영 쇼핑몰의 한계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7일 “남도장터를 믿고 이용해주신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생산해주는 농어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농어민에게는 든든한 판로가 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받는 국민 쇼핑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도시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시민과 소통하는 옥외광고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위 치



대인교차로 오거리



전대병원 오거리



산수동 문화마당

신청자격

접수방법

광고문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공기관, 병원, 학원 등

카카오톡 : jndnnews

E-mail : jnmi1000@hanmail.net

전남매일 옥외광고 ☎ 062-720-1046